열목어와 함께 하는 백천 계곡(백천명품마을)	
개 요	· 태백산 국립공원의 백천 계곡(백천명품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 한반도 최남단에 사는 열목어 서식지로 자연 환경의 청정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해설목표	· 태백산 국립공원의 우수성을 인지 · 열목어가 사는 청정 지역의 소개 ·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복구시킨 사례 소개 · 나무 피리 만들기 체험
대 상 자	모든 연령
대 상 지	백천 계곡
코 스	현불사 ~ 태백산 등산로 입구(4km)
준 비 물	나무피리 교구재, 색연필, 구급약, 설문지
계 절	봄 ~ 겨울
소요시간	80 ~ 100분
체험활동	나무 피리 만들기
특성 및 유의사항	· 해설자의 사전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 대상자와 요구조건에 따른 해설 내용을 달리 한다 ·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주의 요망
해설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입니다. 여러분, 국립공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립공원이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고 문화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 국립공원은 금년 8월 22일, 22번째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태백산은 1,567m 로 크고 밝은 산으로 수 천 년 간 천제 의식을 지내던 천제단과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대덕산과 4,000 그루의 주목 군락지,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가 있는 백천계곡 등 다양하고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백천계곡과 병오마을	- 입구 이곳은 병오마을에 있는 백천 계곡으로 천연 기념물 74호로 지정된 보호어종인 '열목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열목어가 사는 조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물의 온도가 20℃가 넘지 않는 1급수여야 하고, 하천 길이가 최소 20k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어처럼 회귀성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30~70cm로 산란기가 되면 은색 몸빛이 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산란기때 이 계곡으로 다시 돌아와 산란을 하고 더위가 그치는 처서때 남하해 낙동강에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백천계곡은 16km이나 낙동강이라는 긴 강이 있어 살기 적당한 장소이며, 열목어가 돌아올 때는 태백산에 벚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3. 현불사와 자연을 복원 시킨 사례	- 현불사 관찰로 앞 앞에 보이는 사찰은 현불사입니다. 현불사는 1962년 설송스님이 창종한 대한불교 불승종의 총 본산입니다. (1980년 건립) 여러분이 관찰로에서 열목어를 못 보았다면, 현불사 연못에서 이 열목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내에 열목어가 사는 이유는 이 지역의 광산 개발로 열목어가 멸종하자 1990년 현불사 스님들과 주민들이 복원에 나서서 홍천군 내면에 있는 열목어를 들여와 반은 경내 연못에, 반은 이 계곡에 방류하였습니다. 92년에 7,000 마리를 부화시켜 그중 1,500마리를 계곡에 방류한 후 열목어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이상 방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복원시킨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도, 산도,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나무피리 만들기	- 계곡 갈림길 · 나무피리 만들기 준비한 교보재를 나누어 주고, 각자 동물 모양의 피리를 만들어 색칠을 한다.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각자 만든 나무 피리는 본인에게 지급하는 놀이
5. 꽃이야기	- 봄~가을 (가을편) · 궁궁이 원산지가 중국인 귀화식물이며, 원래 약초로 재배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지금은 거의 야생화가 되어 전국의 산지, 개울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울가에서 주로 자라 도랑대 라고도 합니다. 뿌리는 천궁이라 불리는 유명한 약재이며, 꽃은 하얀색으로 꽃 향이 좋고 강하며, 가을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 달맞이 꽃 칠레가 원산지로, 물가, 길가, 빈 터에 자라는 노란 꽃으로, 포도주 향기가 나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꽃으로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들어진다하여 달맞이 꽃이라 하며, 한문으로는 월견초라고 합니다. 최근 달맞이 열매의 씨로 기름을 짜먹으면 성인병에 좋다고 하여

	달맞이 꽃 기름을 먹고 있습니다. · 구절초 가을의 전령인 구절초는 국화과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꽃이며 산 꽃 중에 마지막으로 피는 꽃으로 꽃잎은 흰색에 가까운 연분홍으로 속꽃은 노란 것이 특징입니다.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 가을 꽃과 구별 방법은 잎이 쑥갓모양으로 다른 꽃잎과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기가 아홉 마디 생겼을 때 꽃봉오리가 달린다 하며 줄기가 달마다 한마디씩 생겨 5월 5일 단오에는 다섯마디가 되었다가, 9월 9일은 아홉마디가 됩니다. 이때 약효가 가장 좋아 채취해 약으로 씁니다. 가장 늦게 꽃을 피우기 위하여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참아내는 꽃이기도 합니다. 면역성을 높이는 약재로 사용하며 전라도 정읍에서는 가을에 이 꽃을 주제로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6. 마무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병오마을 백천계곡을 탐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나무와 많은 꽃이 있고, 또한 열목어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천계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 과정에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천계곡에서 열목어가 왜 다시 복원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희귀 동식물이 많아지고 복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천계곡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은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시고, 하산길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탐방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개요

해 설 주 제	**백천계곡 숲길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해 설 소 재	열목어생태 알아보기		
해 설 대 상	중.고생이상 성인	해설지점	백천계곡
해 설 재 료	비상약.나무목걸이 만들기셋트.간식	소요시간(')	4시간
운 영 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		

해설 시나리오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만나서 반갑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소개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우리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 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고,살아 천년,죽어서 천년이라는 500년된 주목의 군락지가 있으며,한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봉화 열목어마을 소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백천계곡 입구인 봉화 열목어마을입니다.봉화열목어 마을은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가 폐교된 자리에 봉화군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

발을 위해 2013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식당동을 포함 교사전체를 리모델링 하여 방 9개와 세미나실 등을 갖춘 숙박연수시설을 조성하고 공모를 통해 봉화 열목어마을이란 명칭을 갖게된 곳입니다.태백산국립공원 병오분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준비운동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백천계곡 트래킹을 하려고 합니다.오늘의 코스는 왕복 8㎞ 정도로 예상됩니다.여러분 운동화나 등산화 다 신으셨나요?
가는도중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저한테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준비운동을 하고 가시겠습니다.옆으로 팔을 벌려주시고(팔운동,다리운동,목운동,허리운동,발목운동 진행)
몸이 조금 풀리셨나요? 여기서부터 약 1.5㎞ 들어가면 태고의 원시림들이 나오는데요,인도가 따로 없어 도로를 따라 걸어야하니 특별히 차조심 해주시구요,
두줄로 출발하겠습니다.

* 백천계곡 소개

관리사무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차량통제 구간입니다.백천계곡은 태백산과 청옥산사이에 자리하여 울창한 천연림과 하늘을 찌를듯한 봉우리들을 병풍삼아 차가운 물이 연중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청정계곡입니다.민간에게 개방된지 오래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있구요,백천계곡은 세계적인 희귀어인 열목어가 사는 계곡으로 80년대 초부터 생태보전 지역으로 통제와 관리가 되어왔던 곳입니다.백천계곡은 잣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백천이라는 이름이라 불리웠고,위도상 최남단에 있는 열목어서식지로 천연기념물 제 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곳부터 현불사 입구까지 자연을 감상하시며 물소리도 듣고,새소리도 들으면서 걸어가시겠습니다.

* 현불사 소개

여기는 계곡내에 있는 현불사입니다. 대한불교 불승종의 총본산이며 창종주인 설종스님이 1962년 창종한 불교로 현불사는 1980년에 세워졌습니다.
설종스님은 한때 예언가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지금도 이곳은 기도가 영험하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현불사에는 일제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하는 호국영령위령탑이 있습니다.

*열목어 서식지 복원

여긴,열목어관찰로입니다.열목어들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크고 작은소가 여럿 있죠.자세히 보시구요 보지못한 분들은 내려가실 때 건너편에 있는 현불사 연못에서 어린 열목어와 함께하는 성체열목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목어가 경내에 살게된 연유는 이렇습니다.광산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느날 열목어가 멸종되자 1990년에 들어와 현불사 종호스님과 석포면 대현리 주민들이 열목어 서식지 복원으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일대에서 열목어 100 개체를 가져와 반은 현불사 연못에 보호하고 나머지 반은 백천계곡에 방류하였습니다.

1992 년에 7000 마리를 부화시켜서 그중 1500 마리를 백천계곡에 방류한 이후 현제까지 열목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 이상 방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지만,자연을 복원하기도 한 모범사례입니다.

* 열목어 이야기

열목어는 냉수성 어종으로 눈에 열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열목어는 생태조건이 까다로운 어류로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으며,특히 공해에 민감한 어종입니다.물이 맑고 수온이 낮은 청정지역에서만 살수 있으며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물에서만 살수있어요.(산소함량10 PPM 이상) 물의 온도가 20도를 넘지않는 1급수 이어야하고,하천길이가 최소 20kM 이상 되어야 한답니다.

연어처럼 희귀성 물고기로 크기는 연어보다 작은 30~70 (m 정도예요.열목어는 빙하시대에 살던 어종으로 눈이 붉고 몸통이 흰은빛이며 눈사이,옆구리,지느러미 등에 붉은색의 작은 무늬가 있습니다.산란기가 되면 은색몸빛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4월 20일에서 5월 20일정도 산란기때 백천계곡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고 절기로 처서 즈음에 남하해 낙동강에서 겨울을 납니다.

백천계곡은 16㎞ 정도이나 낙동강이라는 긴 강이 있어 열목어들이 살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합니다. 열목어가 돌아올 때에는 백천계곡에 벚꽃이 피는 시기죠. 계곡물에 비친 분홍빛 꽃과 거친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붉은 열목어의 모습은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합니다.

* 수달 이야기

또 백천계곡에는 수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운이 좋으신 분은 수달이 열목어를

잡아먹는 광경도 볼수 있는데요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몸매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크고 몸은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게 되어있죠.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휴식하고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외부감각이 매우 발달되어있어 낮이나 밤이나 잘보며,지극히 작은 소리도 잘 들을수 있고,후각으로 물고기의 존재,천적의 습격을 감지 한다고 합니다.먹이는 주로 가물치,메기,미꾸라지등 물고기를 잡아 먹는데,교미시기는 1,2월이고, 임신기간은 63일에서 70일 이며. 2~4마리의 새끼를 낳아 6개월간 보살피며,수명은 19년 정도입니다.

수달이 물속에서 활동 할때는 귀와 콧구멍을 막는다고 합니다.

*식생 키버들

키버들은 계곡옆에 많이 서식 합니다.버드나무는 세계에서 약 200종가량 았고 우리나라에는 약 40종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버드나무는 우리가 많이보는 수양버들,키가큰 호랑버들,버들강아지가 큰 갯버들,그리고 얘는 키버들이예요.

서양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네.아스피린 이예요.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있는 키버들이예요.키버들에는 아스피린 성분인 살라신이 85%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옛날 이순신장군이 무과 시험보다가 말에서 떨어진것 모두 아시죠? 그때 응급처치로 다리를 묶은 나무가 바로 이 키버들이예요.이 키버들을 다리에 묶고. 마저 과거시험을 봐서 무과에 급제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버들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예요.얘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이렇게 흔한 키버들이 우리나라 특산식물 이라는거 꼭 기억해주세요.

* 자연놀이 만들기

여기 숲이 너무 좋죠? 숲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간단한 곤충 만들기를 하고 갈께요.

- 곤충만들기 (자료제공)

잘 만들었네요,서로 칭찬해주기

* 간식타임

* 식생 금강소나무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금강산에서부터 경북 울진,봉화를 거쳐 영덕,청송일부에 걸쳐 자라는 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는 꼬불꼬불한 일반

소나무와는 다르게 줄기가 곧바르며 마디가 길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죠. 금강소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며 켠 뒤에도 크게 굽거나 트지 않을뿐 아니라,잘 썩지도 않아 예부터 소나무중 최고라고 해요.소나무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쌓여 나무속이 진한 황갈색을 띠는데 이 부분을 황장이라고 합니다

황장이 넓고 백변이 좁은 금강소나무는 나무중에 으뜸으로 옛날에는 왕실에서 쓰인 나무예요.한자로는 나무목자에 공공자를 붙여 소나무 송(松)자를 쓰는데,송자를 쓰게된 유래는 옛날 중국 주나라의 관직에는 공.후.백.자.남이 있는데.공은 지금의 국무총리,후는 장관인데,나무중의 으뜸이라는 뜻으로 소나무 송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목적지 도착후 휴식및 감상

어느덧 목적지 까지 왔네요.천연림을 걸어본 느낌은 어떠셨나요? ~~~~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친구분들과 대화도 나누며 사진도 찍으시고.자연경관도 천천히 즐기시면서 자유롭게 현불사 입구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여러분들은 천혜의 자연 백천계곡 트레킹을 통해 아름다운 계곡과 열목어 등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친구분들과 교감도 나누시며 다녀왔는데, 각자 자기의 느낌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연해설시나리오

숲은 선조와 우리 간 정서적 연결고리!

활동장소	태백산국립공원 백천계곡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참가인원	2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명품마을의 의미로 자연보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산림치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준비물	• 디퓨저 병, 향료, 말린 꽃 등
유의사항	• 자연물 관찰 및 체험 시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지정된 탐방로만으로 출입하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여는 말** – 아버지 세대가 전해준 숲 – 화전민에서 명품마을 주민으로.	5분
전개	• **백천 숲의 비밀** – 잣나무와 호랑이 이야기 –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 • **계곡에 마음을 씻고** – 산림치유체험; 꽃병 디퓨저 만들기 –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사과나무 이야기(과수원길, 과수원) – 백천 소나무 이야기	70분
마무리	• **내가 기억할 숲은?** – 숲은 선조와 우리 간 정서적 연결고리	5분

시나리오	**아버지 세대가 전해준 숲(백천계곡 입구)** 요즘 수도권에선 '역세권보단 숲세권이 대세이다!'라고 들었는데, 모두 숲세권에서 살고 계신가요? 과거 역사부터 교통의 발달의 척도가 그 문명 발달의 척도임을 대표해도 무리가 없었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구하실 때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가 될 '역세권'이 중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숲세권은 무엇일까요? 숲세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 산림이 전체국토대비 몇 퍼센트인지 이야기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죠? 그렇다면 과연 국토 면적 몇 퍼센트나 산림으로 되어있을까요? 네, 63%라고 합니다. 산림을 자원으로 보아 선정한 산림강국은 1위 핀란드, 2위는 일본, 3위는 스웨덴, 우리나라는 4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조선 후기 양란을 겪고 일제강점기의 산림수탈, 한국전쟁까지 1950년대의 우리나라는 민둥산 58%, 풀 한포기 없는 산지가 11%나 되었다고 합니다. 1969년 UN에선 '산림황폐도가 고질적이서 치유 불가능하다.'라고 진단 내렸죠. 우리나라 숲의 27%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림으로 1973년대부터 국가주도하의 실시한 산림녹화사업으로 30년간 100억 그루이상의 나무가 우리 산지에 심어져 이러한 산림강국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세대엔 헐벗은 산이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노력으로 지금의 미래세대는 숲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이 복구되었다가 해도 봄에 황사보다 무서운 미세먼지로 숨 쉬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바삐 사시느라 놓치고 계셨을 숲세권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숲길기차 명예 승무원, 천서경 해설사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자락 산촌마을, 3가지의 천연기념물이 노니는 곳 백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전민에서 명품마을 주민으로.(명품마을 안내판)** 잣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란 의미의 백천은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살고 계신 단 6가구의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1960년대 이후의 모습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시기는 화전민을 철거하기 전인 1960년대로 당시 78가구나 살았다고 합니다. 1968년 화전정리법으로 화전민을 철거하여 1970년대 이후 14가구로 줄었다가 현재는 6가구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록 숲을 태워 농사를 지음으로써 시작된 마을이지만 이곳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림의 역사와 닮아있습니다.

화전으로 일궈진 이곳은 더 이상 화전민의 마을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에는 자연에 어우러져 자연을 보존하며 사는 산촌, 어촌마을을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라 합니다. 바로 국립공원 백천명품마을이죠.

우리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문제인 이상기후현상,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제까지 무너져온 볼링핀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연보전의 가치를 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태백산 아래 가장 안전한 마을인 백천으로 숲길 기차 여행 떠나볼까요?

백천이 품은 자연(물소리길 방면으로 걸으며)

잣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란 뜻의 '백천'이란 말은 태백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차고 맑은 물에 비친 모습이 하얗다하여 하얗고 깨끗한 계곡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동시에 열목어가 알을 낳으러 회귀하는 장관을 보실 수 있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탐방객이 쉬러 오며 가을에는 단풍의 비경을 보실 수 있으며 겨울엔 하얀 눈꽃을 품은 곳이죠.

백천계곡 이름에도 들어있는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나무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에도 살고 있는 유명한 동물, 호랑이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로 더욱 알려진 시베리아 호랑이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 조사를 해보았더니, 러시아지역에는 잣나무 벌채 이후 10/1로 줄어 상관성이 증명되었어요. 호랑이가 잣을 먹는 건 아닐 텐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잣나무를 벌채하면 잣을 먹이로 하는 동물인 다람쥐, 청설모, 멧돼지 등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포식자인 호랑이의 개체수도 줄어드는 것이죠. 먹이사슬 피라미드가 깨진 것은 우리 사람이 너무나 활동범위를 넓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태백산 호랑이가 살던 시절 이곳은 엄청난 먹이창고였고 삶의 터전이었죠. 그렇지만 이 마을에도 화전민들이 터를 잡고 살다가 탄광이 개발되며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점차 호랑이를 비롯한 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던 이곳은 폐광이 되자 주민의 수가 크게 줄고 현재는 단 6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희생을 합니다. 황폐화 될 법 했던 이곳은 태백산국립공원 전 구간에서 동물자원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로 마을자체가 천연기념물 제 74호(봉화열목어서식지)로 지정되어있으며, 수달과 산양이 뛰노는 곳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땅에서 태어나 땅 위를 살아가다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고 물고기 한 마리로 어여삐 여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우린 현재 이곳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곡에 마음을 씻고.(물소리길 입구)

우리를 처음 반기는 첫 집은 '투방집'입니다. 투방집은 귀틀집의 경상도 방언으로 통나무를 우물정자로 세워 짓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소리길로 들어가는 입구죠. 물은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뗄 수 없는 보물이죠.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 우린 모두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소리는 듣기만 해도 청각패턴 인지를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게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합니다.

그렇다면 물소리 길로 들어가볼까요? 물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물질이기에 이곳은 물소리뿐만 아니라 새소리도 가득합니다. 물소리길의 데크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로써 제공되지만 그보다도 물에 사는 물고기를 비롯한 동물과 물가의 식물자원을 보호하도록 만든 친환경건축물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에서도 가장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태동하는 이곳엔 도서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을 간이역 삼아 잠시 쉬면서 간단한 자연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쉬어볼까요?

저흰 이곳에 와서 먼저 눈으로 자연을 느꼈고 귀로 자연과 닿았습니다. 이번엔 오감 중 후각을 자극할 체험을 하겠습니다. 바로 꽃병 디퓨저 만들기입니다. 댁으로 돌아가셔도 숲을 느낄 수 있는 숲의 향을 담은 디퓨저인데요, 자연의 색은 눈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의 소리는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의 향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좋은 라벤더와 우리 자녀분들에게 좋은 오렌지 계열의 향을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색과 향을 담은 디퓨저, 만들어볼까요? 다 만드셨나요?

전 아이들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활동에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이 체험활동은 꽃병 디퓨저 만들기이지만 그 이름은 '나를 지키는 향' 만들기라 명명해보았습니다.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피톤치드처럼 이 디퓨저가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이곳을 다시 상기시킬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주 자연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ASMR로 검색하시면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영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장소로 떠나볼까요?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물소리길 다리: 낙락교(洛樂橋);

1. 낙동강의 편안한 다리
2. 물소리와 닿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리

이곳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빛과 반짝이는 물결이 저희를 반기네요. 검룡소엔 마음을 씻는 다리라는 '세심교'란 이름이 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은 아직 없는데요. 제가 하나 명명한다면 낙락교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적 뜻은 낙동강의 편안한 다리이고요. 두 번째 의미적 뜻은 물소리와 닿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리입니다. 힐링스팟인 이곳은 앞보단 뒤, 우보단 좌의 멋진 풍광이 있습니다. 백천 분소장님께서 추천하는 view 포인트입니다. 바로 포토존이죠!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어른들에겐 좋은 뷰포인트인데, 함께 온 친구들에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백두대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1769년 신경준의 산경표에서 처음 나온 말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큰 산줄기를 말합니다. 백두대간은 하나의 대간과 하나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백두대간과 13개 중 하나인 낙동정맥으로 나뉘는 곳이죠. 보시는 산봉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밑으로 흐르는 이 물은 낙동강으로 흘러 경상도 지역의 식수원이 되죠. 식수란 먹는 물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매우 깨끗해야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깨끗한 물이죠.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라고 산경표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이 생기고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생활 양식을 꽃피웠죠. 산이 우리를 나누어 서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디 같은 산 아래 사는 이웃이었고 이웃이란 단어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사과나무 이야기)

우리 오른편으로 보이는 나무는 모두 사과나무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날 집 '사과부자집'의 사과나무죠. 5월이 되면 벚꽃과 비슷하지만 벚꽃

보단 더 큰 꽃망울이 가득 열려 사과꽃향기로 이 길을 가득 채우죠. 9월 말이 되면 청정자연에서 자란 사과의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부자집은 사과농사로 부자가 되고 싶은 집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농사짓는 집이란 이중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릴 적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댁에 가는 것이 방학의 연례행사였었죠? 바로 어릴 적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풍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에 사시는 노부부께선 사과농사를 지어 자녀분들 가르치느라 참 힘들었는데 이젠 이곳이 두 분이 머무를 마지막 장소라 생각하여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은 이제 그 분들에겐 삶 자체의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사과나무를 보면 동화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소년이 나무를 너무나 사랑하자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주죠. 우리들의 부모님과 닮은 나무 같습니다. 자녀분과 선생님 오랜만에 손 한 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쑥쓰러우실까봐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함께 풍광을 감상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백천 소나무 이야기(백천명품마을 사무소인근)

이곳은 백천명품마을 사무소입니다. 국립공원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2인 3각하듯 한발자국,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백천마을의 의미가 잣나무가 많은 곳이라 처음 말씀드렸었죠? 네, 피톤치드가 가장 강한 나무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강한 나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나무죠. 늘 푸르러 우리가 사랑하는 네,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봉화지역의 소나무는 '춘양목'이라 하여 목재로써의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사실 적에 궁궐을 짓던 나무죠. 일제강점기엔 이곳에 소나무 수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를 자신처럼 아끼던 선조들의 배려덕분에 우린 절벽 위 늠름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풍광을 볼 수 있고 나의 자녀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해서 많이 심은 것인지 많이 있어서 좋아한 것인지 1960년대에는 우리 산지의 60%가 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그 수가 23%로 줄어들고 현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송충이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재선충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건으로 추정하는데요. 1988년 부산에서 첫 발견되어 현재까지도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소나무의 멸종설까지 나오고 있죠. 너무나 가깝고 긴밀한 외국과의 교류, 달라지는 지구환경이 없던 병을 만들고 있던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죠.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는 나무가 0.1cm내외 작은 벌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 청소년들이 오면 소나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건 어른들이 잘못하여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소나무를 너희가 다시 지켜라? 살려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어른 사이에 있는 이방인으로 마음은 몸의 성장 속도를 좇아가지 못하죠. 나무가 아프면 스스로 치유도 하지만 나무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치유하죠. 그렇듯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 알지 못할 힘든 점이 있다면 혼자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아닌 부모님들이 더욱 잘 치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 큰 돌덩이가 있다면 모두 알고 피하여 넘어지지 않을 거에요. 늘 언제나 작은 돌멩이로 넘어지고 상처 입는 경우가 어른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질거에요. 그땐 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여 숲으로 쉬러 오면 좋을 거에요. 친구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엔 아직 어려요. 우리 어른들이 망가뜨리고 잘 지키지 못했으니 친구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볼게요. 건강한 나무가 숲을 지키듯,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 자연을 지켜주세요.

내가 기억할 숲은? (백천탐방지원센터 방면)

명품마을 사무소 뒤로 있는 집은 큰바우집으로 토종꿀을 모으는 집입니다. 식물의 70%가 곤충을 비롯한 동물에 의해 수분을 합니다. 그 중에선 꿀벌이 단연 역할 비중이 크죠.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꿀벌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고유한 벌을 통해 생계를 잇기에 벌을 보호하는 일에 활동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 위론 나무다리집입니다. 1970년대에 만든 원목다리가 있어 멋진 풍광을 자랑하죠. 위로 보이는 집은 옛집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자 최고령 어르신이 살고 계시죠. 이제 저희는 해설의 종착점인 백천탐방지원센터에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맺음말을 드리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전 오늘 해설의 제목을 '숲은 선조와 우리간의 정서적 고리'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만 느끼셨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명품마을 주민들의 삶을 통해 자연보호의 가치를 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숲에서 해소하고 가시길 바랐습니다. 저의 해설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숲은 타임머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자 과정이고 끝이자 다시 시작인 이곳은 단지 산양, 수달, 열목어가 살아 특별한 곳이 아니라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을 훼손한 경험이 있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보호의 가치와 방법이 세대로 전해지며 바뀔 순 있더라도 우리 모두 같은 숲 아래 사는 이웃처럼 '함께'라는 생각이 첫 단추라고 생각했습니다. 잣나무, 호랑이, 계곡, 소나무, 꿀벌은 우리나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의 작은 축소판이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과거의 장소입니다. 나와 아버지, 자녀를 잇는 내 집 앞 숲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인 마을 주민들의 가치를 꼭 기억해주세요.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길 기차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여섯 번째 집은 저 위에 있습니다. 이름은 끝집입니다. 마을 끝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탐방로는 태백산으로 향하는 시작입니다.

이렇듯 시작과 끝은 늘 맞닿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 백천계곡 숲길 기차 명예 승무원 천서경 해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